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 ·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전북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위해 긴급 추경예산 236억원 편성

전북도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경영피해 회복 기반 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추경예산 236억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경영위기로 자금예약을 겪는 도내 제조업체들에게 신속한 자금 공급을 통해 자금난 해소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보증 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지원 등 금융지원 예산 224억원을 편성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간접적인 경영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신보재단)으로 하여금 특별보증을 실시할 재원 마련을 위한 출연금 30억원과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경영안정자금 150억원의 확대 실시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비 6억원을 추가로 확보(본예산 188억원→194억원)해 추진된다.

이번 추경에 확보한 코로나19 관련 자금은 기금 150억원 확대 실시와 3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별보증으로 긴급 운영된다.

기금 150억원 확대 실시는 1.5억원을

추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주며, 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하게 되고, 신보재단에서 300억원 긴급 특별보증은 기업당 최고 2억원 한도의 지원과 이차보전은 2.0%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특히 사회활동 제약에 따른 오프라인 쇼핑의 급속한 위축으로 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온라인 토탈 마케팅 지원, 홈쇼핑 방송 지원,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 전북형 위기대응 바우처 지원 등 지역기업 매출 회복을 위한 예산 84억원을 반영했다.

온라인토탈마케팅 지원사업은 우체국, 위메프, 카카오톡 등 국내채널과 야마존, 쿠팡 등 해외채널의 프로모션을 지원할 계획으로 수혜기업이 1,500개사에서 2,000개사로 늘어날 전망이다.

TV홈쇼핑 방송지원은 홈앤쇼핑, NS쇼핑, 공영쇼핑, SK스토아 등 4개 TV홈쇼핑 채널을 통해 9개사가 늘어난 18개사를 확대 지원해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확산에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글

로벌 무역박람회 개최되는 등 해외 마케팅 활동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도내 중소기업들의 수출마케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도 운영해 해외판로 개척에 나선다.

이번 상담회는 도내 중소기업 30개사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추진된다. 제품 샘플을 해외바이어들에게 미리 배송해 직접 제품을 체험하며 수출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 계약성사를 높일 계획이며, 현장에서 맞춤형 무역 전문가의 컨설팅도 받을 예정이다.

원부자재 거래선 다변화, 수출마케팅, 수출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는 전북형 위기대응 바우처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원부자재 공급 지연에 따른 생산 차질, 수출 감소 등의 코로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2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백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해 피해 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할인액, 택배비 등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금을 2.1억에서 3.1억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경제기업 3개 업체를 공모·선정해 홈쇼핑 정액수수료를 전

액 지원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온라인 및 홈쇼핑으로 판로 확대를 지원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2019년 이후 운영 중인 '우체국쇼핑 전북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브랜드관'에 입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품별 할인액의 지원금을 당초 70%에서 85% 이상으로 확대하고, 우체국 택배비의 건당 최저요금 수준(1,900원)을 정액 지원한다.

전북 사회적경제기업 홈쇼핑 방송지원사업 추진을 통해서도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3개 업체를 공모·선정해 홈쇼핑 입점 정액수수료(1,500만원)를 기업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반영된 추경예산이 조기에 집행되어 긴급 추경예산 편성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코로나19 중증 단계 이상 확진자 82명

위중 환자는 58명... 전날대비 중증 단계 환자 4명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 가운데 산소마스크 등 치료가 필요한 중증 단계 이상 입원 환자가 82명으로 나타났다.

관진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18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18일) 입원 중 이신 환자 중 중증 이상 단계는 총 82명"이라며 "중증단계는 24명, 위중은 58명"이라고 밝혔다.

중증 환자는 스스로 호흡할 수 있지만 폐렴 등으로 인해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21 또는 41 산소를 주입 받는 산소 마스크 치료가 필요하거나 열

이 38.5도 이상에 해당한다.

위중한 환자는 자가 호흡이 어려워 기관 내 삽관 또는 기계 호흡을 하거나 심장과 폐를 대체하는 인공 심폐장치인 에코모, 인공호흡기 등을 사용하는 환자다.

중증 환자는 지난 8일 24명, 9일 23명, 10일 26명, 12일 34명, 13일 32명, 14일 29명, 15일 27명, 16일 30명, 17일 28명이다.

같은 기간 위중한 환자는 8일 36명, 9일 42명, 10일 54명, 12일 59명, 13일 59명, 14일 63명, 15일 63명, 16일 59명, 17일 58명 등이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19~20일까지 도내 전역 강풍 예비특보 발령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야외시설물 등 시설물 안전점검 당부

1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전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전북도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야외 시설물 등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 돌입했고 도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19일 아침부터 20일 아침까지 도내 전 지역 및 해

상에 걸쳐 매우 강한 태풍급 강풍이 예상되어 시설물 안전관리 및 해상의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바람은 전북도 전지역에 풍속이 20~25m/s로 여름철 태풍수준의 바람이 예상되며 해상에선 2~4m의 높은 파도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는 야외에 설치된 천막이나 간판, 건축공사장, 철탑 등 야외 시설물 및 해상 설치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시군에 당부했다.

갑작스런 돌풍으로 인한 과수 낙하 등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고, 강풍에 따른 선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내 정박과 항해 예정인 기타 다른 선박들에 대해서도 항해 자제를 요청했다.

특히, 29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설치된 천막이나 간판 같은 야외 시설물이 강풍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 시 음압텐트도 일시 철거한 후 승차(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실시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께서 강풍 등 기상특보 발령 전에 비닐하우스나 옥외 광고물 등을 단단히 결속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강풍 특보가 발령된 이후에는 옥외 간판 추락에 의한 2차 인명피해 우려가 크므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대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경제위기 극복 지혜 모아야”

文대통령, 경영·노동계·中소 등 경제주체 원탁회의 가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분야별 각 경제 주체들에게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돼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경제를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19 대응 경제관련 회의는 이번이 네 번째다. 일반 가계를 비롯해 경영계·노동계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경영계와 노동계, 중소·중견기업, 벤처·소상공인, 수출·서비스업, 금융계와 소비자단체까지 여러분들을 모셨다”면서 “모처럼 양대 노총에서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해야 하고, 또 경제 살리기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위기 극복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추경을 포함하여 총 32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지원을 실행할 것”이라며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는 물론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영세 사업장에 대한 임금보조, 저소득층 소비 여력 확충과 고용 유지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어둠 속에 더욱 빛나는 우리 국민의 자력”이라며 “지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욱 좁힐 때다. 정부는 방역이 최선의 경제 대책이라는 생각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경제를 지켜나가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전북도,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의 당부

가축질병방역상황실 운영·비상근무 등 실시

전북도는 경기북부와 강원북부의 접경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지속적으로 발생(총 378건)되고 있어 도내 돼지 사육농가의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2019년 9월 발생 이

후 줄곧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축질병 방역상황실을 운영하며 비상근무(24시간 상황유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차량의 이동시 필요한 소독필증 발급을 위해 도내에 32개의 거점소독장을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한다.

또한,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농장 및 개체 조기 발견을 위해 사육 중인 돼지 2,682두(270호)와 포획야생 멧돼지 132두에 대한 검사를 지속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특히, 봄철은 야생멧돼지의 번식으로 인한 서식 개체증가와 활발한 영농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맞물려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농가에서는 야생멧돼

지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방조망·기피제 등을 설치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가 필요하며,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의 강화가 중요하다.

더불어 농장관계자는 외출후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발판 소독조와 소독시설을 사용해 소독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며, 축사 내외를 주기적으로 소독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